

염화콜린 반덤핑관세 3년 연장

무역위, 미국·중국·인디아·캐나다산 ... 산업피해 재발 우려로

무역위원회가 사료첨가제 염화콜린(Choline Chloride)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3년 연장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11월26일 미국과 인디아, 중국,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결과, 현재 부과되고 있는 10.28-27.55%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 부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염화콜린은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4로 주로 닭, 돼지 등의 가축사료에 첨가제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료 원료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염화콜린은 사료 원료 가운데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몇 안 되는 품목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반덤핑 조치 이후 염화콜린 수입이 줄고 국산 염화콜린의 시장점유율이 늘어 산업피해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중국, 인디아 등의 낮은 수출가격과 과잉 설비 등을 감안하면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면 다시 덤핑 수출이 이루어져 산업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유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26>